4회: 신명기 5-8장

신시아 파커 박사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5-8장 4부입니다.

**소개**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5장, 6장, 7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있었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많은 세부 사항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 그들이 돌아다닌 그룹, 그들이 여행한 길. 우리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대한 많은 설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곳에서 현재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설교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세의 설교와 다릅니다.

**신명기 5:1과 신명기 6장과의 비교** 자, 계속해서 신명기 5장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6장에서 다시 한 번 흉내낼 서론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듣고 있으라는 부름을 들었습니다. 쉐마. 우리는 그것을 4장에서 들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5장 시작 부분에서 그것을 얻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내가 오늘 이것을 너희 귀에 말하노니 너희로 그것을 배우고 자세히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호렙산이나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교통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제 6장, 저와 함께 6장으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6장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장은 듣고, 듣고, 행하라는 부름입니다. 6장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곧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네 평생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네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5:2 – 역사적 알림** 따라서 챕터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6장은 이유에 대한 동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자, 다시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5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판단을 들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령과 판단이 어디에서 왔는지 상기시키는 이 작은 역사적 이야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거하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다시 요단 강, 요단 강가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의 직접적인 청중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곧 여기 호렙 산에 섰는 우리에게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니, 그것은 이전 세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인 이 세대들을 신명기가 어떻게 통합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과 함께 그 이야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과의 비교** 그래서 4절에 “그 때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전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본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에 인용된 십계명을 비교한다면 여기 신명기에서 큰 유사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명기가 이 부분을 가르칠 방식에 고유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반드시 고유하지는 않지만 신명기의 주제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이미 신명기에 어떤 언약적 주제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종주국-봉신 조약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천에 헤세드** 그것을 다루거나 그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십계명에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로서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거칠고 강하고 진노하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비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으실 것임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삼사 대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네, 약간 거칠고 약간 어렵게 들립니다. "증오"라는 용어와 "사랑"이라는 용어는 종종 언약적 용어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증오는 반드시 언약을 어긴 사람들만큼 내적인 감정의 끓어오르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깨뜨린 결과인 보응은 3대와 4대에 걸쳐 내려갑니다. 단, 문장 끝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사랑의 친절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의 친절을 뜻하는 헤세드는 영어로 잘 번역되지 않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풍성하고 깊습니다. 끈질긴 사랑이고, 오래 참는 사랑이고, 불편한 사랑입니다. 늘 언약에 충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헤세드 사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러한 성약을 맺으셨고 항상 그 성약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hesed, 그 깊고 풍부하고 끈질긴 종류의 hesed 사랑에 대한 약속은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3대, 2대, 4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은 헤세드 사랑일 필요조차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답으로 그런 식으로 사랑하기 위해 수천 명에게 집요하십니다 .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정말 놀라운 마음,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방식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와 안식일의 차이점 5장과 출 5장. 20** 그럼 여기서 십계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 20장의 인용문을 보게 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시니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소나 당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너와 함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와 마찬가지로 나도 쉬어라." 매우 포괄적인 목록입니다. 쉬는 것은 가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가장, 가족의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가축, 일하는 모든 사람, 생계입니다. 그것은 모두 창조입니다. 모두의 휴식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 ”

 이제 저와 함께 출애굽기 20장을 넘기세요. 출애굽기 버전이 말하는 것을 봅시다.

이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충되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러한 법률 코드 작성의 차이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10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만 있게 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 때문이고, 창조의 마지막에는 창조물 위에 좌정하시어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즉위 사상.

 신명기 20장은 당신이 노예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뒤집어졌을 때 이집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곤욕을 당할 때, 그 가마가 풀무불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서 이끌어 내어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에 즉위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사건을 다시 언급하여 백성들이 역사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동하신 방식을 염두에 두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사랑하신 방식, 그것이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는 이유이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이스라엘 율법** 그래서 신명기 5장의 나머지 부분은 십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율법의 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로 랍비들은 십계명이 큰 범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613개의 율법을 취할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 또는 어떻게든 그것들을 십계명 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를 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신명기의 형식이 어떻게 거의 언약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모세가 준 설교의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또는 문자 그대로 구성하여 우리의 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2장에서 시작하는 법전까지.

 우리는 여기 신명기 5장에서 10개의 단어 또는 십계명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이 포함된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법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조사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12장, 13장, 14장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챕터가 19장에 이르고 25장을 지나면 사람들이 사회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십계명을 쪼개듯 아주 잘 쪼개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6장이 5장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이 설교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이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령과 계명을 준수하는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4 – 쉐마** 저는 4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Shema Israel.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음, 그것이 그것을 번역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쓰여진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모음이 없거나 모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번역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특정 문장이 멋진 문장이 됩니다. 의미가 정말 깊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Shema는 "듣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는 야훼,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Elohenu 는 "우리의 신"이고 다시 야훼이며 Ehad 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어디에 두나요?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꽤 "Listen Israel"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네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야훼 바로 뒤에 "is"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야훼는 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다른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8, 9, 10가지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사람들이 부르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 야훼 에 하드 ." 이것은 유대인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신성한 문장.

 이 문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 하나님이심을 굳게 선언합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있다"라는 말을 어디에 두든 그것은 포함하고 네 단어로 매우 타이트하게 하나님은 하나라는 일신론적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4입니다.

**신명기 6:1-15**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장까지 살펴봅시다. 이것이 신명기 6장의 첫 번째 전체 부분입니다.

**신명기 6:5 가장 큰 계명 -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 후에 우리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고 했습니다 .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매우 친숙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신약을 꽤 많이 읽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꽤 많이 등장합니다. 아, 가장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입니다 .

 그러나 신약성경에 익숙해지면 추가된 사람과 자신과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여기 신명기 6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작은 부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레위기 19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19장에서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면 신명기 6:5로 시작하는 "너희는 사랑할지니라"가 나옵니다. 다른 두 번만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그 두 시간 모두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의 전체 목록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구절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람들은 이러한 유사성과 언어를 알아차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이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6 가족 상황에서의 가르침과 한계 장소 표시** 그래서 신명기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 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그래서 이것들은 극단적인 정반대를 취할 때의 메리즘이고, 그 의미와 그 사이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거나 걸을 때만이 아니라 서 있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먹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집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는 계속하여 "너는 그것을 네 손에 매고 네 이마의 앞면이 되게 하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과 네가 판 웅덩이를 네게 주리라 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 리니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파지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먹어도 배부른즉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과 6장 1-15절에서 엄청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강조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계 장소를 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계 장소는 그 사이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출입구를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출입구는 복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출입구가 방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출입구는 한계 장소로 간주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장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읽을 때 이미 이 법칙들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네 손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당신의 손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행동 사이의 한계 공간입니다. 손은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상호 작용의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손에 매어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침의 코드 아래 있음을 상기시키십시오.

 "전두엽이나 머리 앞부분에 놓으세요. " 어떤 이들은 "미간"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간 모호하지만 "미간"은 당신의 인식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 당신의 손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당신의 눈 사이에 외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세계.

 "너희 집 문설주에도 기록할지니라." 당신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당신이 도시에 들어갈 때 그리고 공공 장소 "그리고 당신의 성문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도시가 조직된 이웃 사이에서 주변 세계로 이동할 때.

 따라서 기억해야 할 방법은 개인으로서 당신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공적인 장소까지 실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1-15절을 어떻게 특징지으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적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구절들을 말한다면, 우리는 기억할 개념을 포함하여 쉐마를 포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 1-15절의 핵심 개념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대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한 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거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14-15**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면 백성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네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하실 것이니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Massa는 실제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돌아가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읽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설교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읽으십시오.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하고, 불평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말하는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앞에서 모든 원수를 쫓아내시고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좋은 땅을 차지할지니라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그 증거와 증거가 무엇이냐 하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가 무엇이뇨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무서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모든 나라에 행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 반복되는 일이 있다는 말을 이미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율례와 계명은 백성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러한 명령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적인 상황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14-15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이 모든 규례를 지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은 우리의 항상 복과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생존을 위함이니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명기 6:14-25을 어떻게 특징지으시겠습니까? 이전 구절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둘 다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규례와 계명이 그들을 땅에서 성취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신 일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좋아요, 6:1-15의 개념과 6:14-25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생각에 매달리십시오. 우리는 강의가 끝날 무렵 조금 후에 이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신명기 7장 땅과 다양한 지형의 다양한 주민** 이제 7장과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세히 읽지 않을 것입니다. 7장에는 12장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에 도달하면 이러한 측면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7장의 까다로운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실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목록을 얻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크고 강한 일곱 족속이라"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족 그룹은 실제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가나안 사람들 이상입니다. 그곳에는 알려진 종족 그룹이 있으며 신명기는 7, 7개의 다른 국가를 인용합니다.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장에 이르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신명기가 사람들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다루고 싶습니다. 누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매우 다양한 땅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산악 지형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짙은 갈색으로 칠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강변 공동체와 비교하여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거대한 제국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매우 견고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땅인 땅의 다양성에 대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해안 평야에서 결국 살게 된 곳일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의 푸름 과 해안 평야의 평탄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이 특정 비디오에서 약간 흐려질 수 있지만 이것은 깊은 계곡을 보여줍니다. 모든 녹색을 볼 수있는 농부의 지형입니다. 이런 종류의 땅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비탈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농부들은 땅을 통과하여 계단식으로 계단을 만들어 언덕에서 실제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언덕에 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지형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 평야에 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땅의 질감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제 우리는 여전히 산이 있지만 물은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물이 적기 때문에 이 언덕이 얼마나 갈색이고 메마른지 보십시오 . 이 언덕에서 농업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동쪽은 비도 적고 물도 적습니다. 따라서 농사 기술은 달라야 합니다. 여전히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곡에서 물을 찾는 것만큼 언덕을 계단식으로 만들지 않고 계곡 아래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양치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그 언덕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곳은 베들레헴 성 밖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보다 훨씬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에서는 다소 황량했지만 여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토양과 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모두 양치기 지역입니다. 이것은 해안 평야와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남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이곳은 우리가 낙타를 줍기 시작하는 곳이며 훨씬 더 척박하고 건조합니다. 여기는 비가 더 적게 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을 매우 다양한 곳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계는 정기적으로 변화합니다. 현대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약 45분만 이동하면 됩니다. 창밖에서 보는 모든 것이나 하이킹을 통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옷도 다르고 건축 자재도 다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은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언덕 위에 있는 농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고,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에서 그들을 통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사람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기에 있고, 통일되지 않았고, 에돔과 같지 않고, 모압이나 암몬과 같지 않은 일곱 종족이 이미 있습니다. 풍경이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종류의 중앙 정부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그들은 광야를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땅, 이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한 하나님, 즉 쉐마 이스라엘과 함께 한 종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 시작할 때 , 12장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 그들은 어떻게 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한 민족으로 연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에는 12장에 도달해야 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 용사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7장에서 우리는 12장과 유사점이 있음 을 봅니다 . 우리는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족 그룹이 있음을 보았지만 신명기 7장은 이 장에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전사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신명기 1장에서 더 이른 주제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사실 18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에게 담대히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 기억함과 망각함** 이제 8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8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기억의 개념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히브리어를 살펴보고 이 단어가 원래 청중, 성경의 청중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zakar) 입니다 . 그리고 자카르(zakar)는 “현재의 어떤 것을 인식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것은 마음의 뒤에서 마음 의 최전선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현재에 유지하고 현재의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잊는다"의 반대말은 단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좋아하는 상점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잊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식의 포기입니다. 따라서 자카르가 무언가를 전면으로 끌어내어 기억과 의식에 적극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경우 망각은 실제로 그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어떻게 신명기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율법의 세부 사항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 하나님의 행동과 행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 행동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충만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기억과 감정** 이제 기억은 감정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마음의 최전선으로 끌어당길 때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신에 대한 감사, 또는 이집트인들에게 압제당했을 때 느꼈던 감정. 그래서 기억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감정이 연결될 때 그 일부는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 그 느낌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윤리적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무엇 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끌어내셨을 때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압제를 받는 비슷한 자로 더불어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일부 법률을 검토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신명기 8장과 번영** 그래서 8장에서 번영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번영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경험한 번영은 그들에게 번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대신에 그들이 그 번영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자립 또는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또한 그들의 광야 경험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땅의 비옥함과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 1절을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선행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니이 사십 년 동안을 네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니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너는 마음에 알지니라 ."

 그러므로 광야를 기억하되 광야에서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기억할 때 주변의 자연적인 요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양하실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신명기 8:6 광야와 대조되는 선한 에덴과 같은 땅의 이미지** 그래서 6절에서 이제 우리는 그 땅에 관한 형상들을 뽑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친 광야와 대조적으로 그들의 옷은 낡았을 것이고 신발은 낡아졌을 텐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이.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니라” 좋은 토지 아이디어가 또 있습니다. 에덴 유형의 잠재력이 있는 토지입니다.

 "골짜기와 산지에 시내와 샘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소산지요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네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풍요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땅에 있든 광야와 같은 땅에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과 농경력** 이제 목록의 일부는 Deuteronomy가 나열하는 제품의 유토피아 목록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땅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달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해를 상징하는 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땅에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 그들의 생계는 그들이 사는 곳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토지가 기능하고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토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간을 정리할 때 그들은 땅에서 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에 따라 시간을 정리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원과 외부 원이 있고 두 원 사이의 간격인 초승달 모양은 실제로 비가 올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비가 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나 성경의 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계절은 두 개뿐이었습니다. 북미에서는 4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 두 계절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의 둘레, 또는 원의 둘레를 따라 가는 문자를 가지고 있고 문자는 멀리에서 시작하고 위쪽에서 왼쪽으로 J와 JFM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1월 , 2월, 3월, 4월, 5월과 같은 영어 월의 문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에 따라 달력을 구성할 것입니다. 1월 1일, 우리는 달력을 뒤집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땅이 기능하는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훨씬 늦게 오는 1월에 따라 그들의 해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따라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막 건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멋진 빛과 경이로운 안개 낀 비의 작은 방울을 얻게 될 것입니다. 9월/10월에 그 비의 혜택은 땅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토양에 스며들며 농부가 나가서 쟁기질하고 건기 동안 단단하게 구워진 단단한 토양을 부수게 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농부는 11월에 밭갈이를 하고 12월에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이 되면 우리는 크고 거대한 무거운 비구름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이 지나면 땅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비가 점점 잦아들고 비바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당신은 다시 안개 폭풍을 더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이제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농부의 농작물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농업 연도의 마지막 물 밀기입니다.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쟁기질 과 씨뿌리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수확할 준비가 된 제품은 3월에 나오는 보리입니다. 4월과 5월에 밀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 수확이 끝날 무렵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에서 6월 초까지는 건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태양의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이 되면 포도가 수확됩니다. 무화과와 석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하고 멋진 여름 과일. 그리고 10월이 되면 다시 이른비가 시작될 즈음에 그린 올리브와 블랙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따라서 올리브 수확은 농부가 전체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전에 땅에서 가져온 마지막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이른 비, 올해의 머리, 한 해의 시작인 Rosh Hashanah를 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면 이 농업 달력으로 계속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토지가 기능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농경지가 기능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은 그 땅에서 나오는 천연물입니다. 우리는 땅에 대한 묘사에서 신명기가 이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숙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7 좋은 땅에 대한 설명** 자,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골짜기와 산지에 분천과 분천의 시내가 흐르는 땅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소산지요 꿀의 소산지요

 해당 제품의 목록에 대해 알아차린 것이 있습니까? 그 제품들? 그들은 농업 달력에 따라 순서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이 어떤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임의의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현상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땅의 산물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곳이 좋은 땅입니다. 바로 이 참된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Eden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처럼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8:18: 번영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 이르면 번영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 이미지와 땅 이미지 사이의 비교를 보았습니다. 18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는 그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이다."

 잊어버리면 신명기 8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신명기와 예수님의 광야 시험(마태복음 4장)** 그럼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걸어가시다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자 요한을 발견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로 갑니다. 그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무엇에 대해 생각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금식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특히 신명기 학자로서 예수님이 신명기에 거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책은 많은 이스라엘과 유대 신학의 핵심 책입니다. 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모두 신명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오.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버전을 읽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잠시만 멈추자.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정체성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예수께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하였 느니라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전에 이것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본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약성경 본문이 구약성경 본문을 다시 언급할 때마다 인용된 한 문장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의 신분이 의문시될 때, 예수는 신명기 8:3으로 대답하지만, 그 부분 전체를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대 육지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황량하고 메마른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련하신 것처럼 여기 가십니다. 지금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당신.'" 시편 91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 신명기 6장 2절의 인용문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말하십시오. : 신명기 6장의 전체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누구이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신 6:13) . 신명기 6장의 첫 부분 전체를 보세요. 그게 다 뭐였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따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을 때 신명기에 거하셨고 신명기는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직면한 유혹에 맞서기 위한 요새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신명기 9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Cynthia Parker 박사와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4장 5-8장입니다.